

# 카이바이오텍, 30억 투자유치 확정

### 전북연구개발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KB인베스트먼트·코오롱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억원씩

전북연구개발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인 (주)카이바이오텍이 30억원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카이바이오텍은 기술성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국내 대표 창업투자회사인 KB인베스트먼트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로부터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 이 회사는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

지주회사(이하 전북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이자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낸 성과다. (주)카이바이오텍은 전북대학교 방사성 의약품, 특허기술의 상용화 및 치매진단제 생산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산·학·병 협력모델로 설립됐다. 새한산업(주) 현금 36억 출자, 전북기

술지주회사 현금 7억 출자, 전북대학교 기술 5.09억 출자, 그리고 전북대 병원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카이바이오텍의 생산시설은 유럽 GMP기준에 100% 충족하는 시설로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방사성진단제(FDG) 생산, 중기적으로는 해외 다국적 기

업의 치매진단제의 생산 및 유통, 장기적으로는 방사성 의약품 임상 및 신약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R&D를 통해 최단 기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선출

최문순(60·사진) 강원지사가 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5일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에서 유 회장과 최문순 강원지사 등 12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최 지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내정됐으나 최근 박 시장이 회장직을 고사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재선 공역 단체인 최 지사가 선출됐다.

협의회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로 변경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 전북자동차기술원

###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새 출발

전북도 산하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자동차 융합기술원으로 새 출발한다.

전북도는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산업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자동차 융합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영문 이니셜은 고유브랜드로 정착된 'JIAT'(Jeonbuk Institute of Automotive convergence Technology)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조직도 본부체제로 개편했다. 융·복합 신사업 기획과 미래 융합기술 R&D, 자동차·부품 협력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존 6실 2센터의 조직을 1실 5본부체제로 개편했다. /고민형 기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5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및 행정부 건의사항과 자치회관 건물매입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발전 관련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동향을 살펴보고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전북테크노파크,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수도권 제외 지방 유일... 연간 국비 1억씩 3년간 미래부 예산지원·지정마크 활용

전북테크노파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인프라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래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민간의 SW인력 양성 활성화 및 산업맞춤형 SW인력 배출을 확대하고자 지난 7월 SW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SW전문인력양성기관' 신규

지정대상기관을 공모했다. 평가 결과 도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를 포함한 총 11개 기업 및 기관이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테크노파크는 연간 국비 1억 원씩 3년간 미래부 예산지원 및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11개의 선정 기관 중 10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

중된 외중에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기관으로 지역 SW산업육성과 고급인력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성호 도 미래산업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SW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관련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전북테크노파크가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인력양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시각장애인들과 상사화 꽃나들이

### 현대차 전주공장 가족봉사단, 내장산서 맨투맨 봉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북 지역 시각장애인 40여 명과 함께 뜻깊은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

전북 사랑의열매, 시각장애인협회 남원지부와 함께 한 이날 가을 나들이에는 이 회사 직원 및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봉사단 40여 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패주었다.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된 이날 나들이에서 이 회사 가족봉사단은 참가 시각장애인들이 맨투맨으로 전담해 안전하게 리드하며 100만 송이 상사화가 만개한 주변 풍경을 그림 그리듯 세세하

게 설명해 주는 등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다.

이와 관련해 참가 시각장애인들은 "아들 딸 같고 손주 같은 사람들이 곁에서 정겹게 돌봐주고 주변 풍경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니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모처럼 나들이 기분을 제대로 낼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사회공헌활동 부문 회사 중점추진사업인 해피부브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돕는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중이다. /원주=이중복 기자

## 전북도, 추석 물가안정대책 추진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폭염·가뭄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돼 오는 16일까지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실시한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추석 성수품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또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생필품 등 추석명절 성수품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과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모니터링을 벌이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담합, 가격표시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한다.

이밖에 상인회 등과 협력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시스

## 소방헬기, 소방안전 교부세 지원

### 10% 범위내에서 별도로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세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지난해에 신설된 지방교부세이다.

지난해 3141억원에 이어 올해 4147억원을 각 시·도로 교부했고 이를 교부받은 지자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

기되자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약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다음 교부액에서 감액토록 해 목적 외 사용을 차단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안전신고 중 개선을 많이 한 경우에는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안전지수 제도를 첫 시행한 점을 고려해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시켜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많은 교부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뉴시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